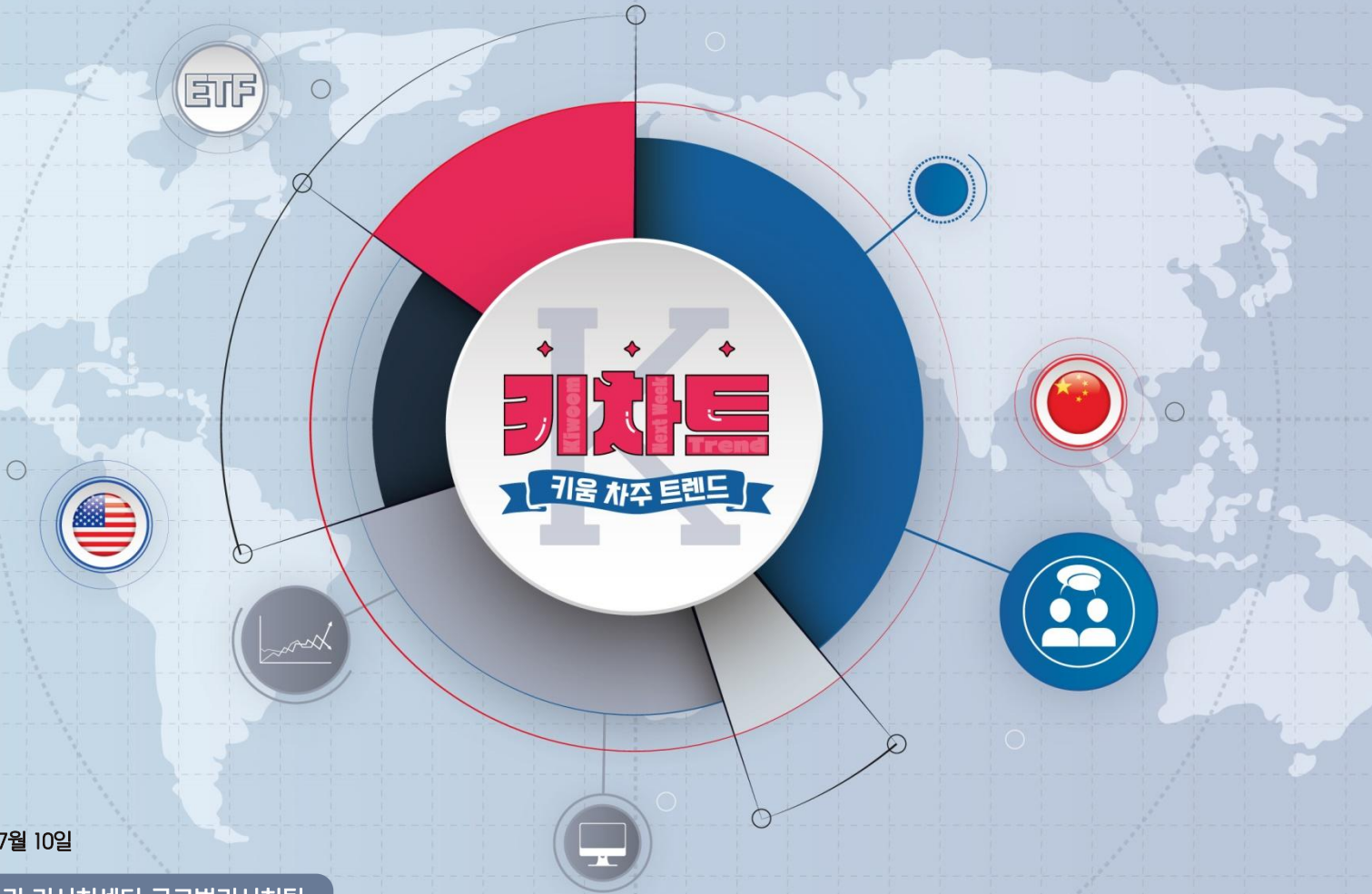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 2026년 7월 10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7월 2주차

주요 트렌드 이벤트



◆ 금주 트렌드 ◆

美: 금주 미 증시는 폭스콘 실적 호조로 상승 출발했으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불거진 AI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에 따른 유가·금리 급등으로 하락함. 그러나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된 가운데, 마이크로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주요 기업의 AI 지출 유지 방침이 확인되며 반도체 중심의 반발 매수세로 반등 마감

中: 금주 중화권 증시는 주 후반 CXMT 상장 가시성 개선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은행 등 고배당 업종 상승. 한편 역외증시는 알리바바 중심 이익 회복 기대감 및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강세

ETF: 주 초반 트럼프의 추가 공습 언급과 FOMC 의사록의 인플레이션 경계 등으로 위험선호 위축. 이후 유가 하락과 주간 고용 지표 안정, 마이크로론 투자 확대, 애플-브로드컴 협력 강화, SK하이닉스 ADR 흥행 등 AI·반도체 모멘텀 재부각되며 낙폭 만회. 예너지는 유가에 연동된 등락을 보였고, 금융주는 차주 은행 실적 기대가 유입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연출

◆ 차주 트렌드 ◆

美: 차주 미 증시는 CPI 발표와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령이 될 전망. 미-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는 가운데, 최근 변동성이 컸던 반도체 및 인프라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금융사들의 추가적인 총당금 적립 여부와 주 후반 예정된 TSMC 등의 실적 기대감이 증시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

中: 차주 중화권 증시는 AI 중심의 높은 주가 변동성 지속 예상. 다수 반도체 및 IT 기업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CXMT 상장 관련 소식도 지속될 전망. 한편 역외 증시를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 유입 지속 기대

ETF: 차주는 대형 은행주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6월 CPI·PPI와 주요 기업 실적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물가 안정과 ASML·TSMC 실적을 통한 반도체 수주·설비투자 견조함이 확인될 경우 투자심리 개선 기대. 다만 유가·물가 재상승이나 보수적 가이던스는 고배율 성장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금융주는 자본여력과 주주환원 확대, eSLR 완화 기대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트렌드






































































- ◆ **AI 및 반도체 투자 지속성 공방과 변동성 확대:** 폭스콘 호실적과 마이크로론 투자로 AI 메모리 수요 견조함 입증. 다만 삼성전자 실적 후 후기 사이클 우려 및 밸류에이션 부담에 반도체 차익매물 출회. 주 후반 하이퍼스케일러 경영진의 AI CapEx 투자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관련 파트너십 체결 소식으로 반등 성공
- ◆ **미-이란 지정학적 충돌 격화에 따른 매크로 불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제재로 중동 리스크 고조. 유가 급등 및 국제금리 4.5% 돌파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며 기술주 수급 부담 작용. 주 후반 트럼프의 전면전 배제 발언과 외교적 중재로 유가·금리 안정세 회복

중국 트렌드

- ◆ **CXMT 7월말 상장 기대:** CXMT는 7월 13일 수요 예측에 이어 16일 청약 진행할 예정. 월초 상장 지연 우려가 존재했으나, 상장 절차 일정이 발표되며 상장 가시성 크게 개선
- ◆ **중국 로켓 발사체 회수 성공:** 7월 10일 CASC는 창정 10호가 중국 최초로 1단 발사체의 해상 플랫폼 회수에 성공했다고 발표
- ◆ **Unitree 상장 임박:** 7월 2일 증감회의 IPO 등록 승인을 완료하며 상장 임박. 7~8월 예정되어 있는 AI(WAIC) 및 로봇(WRC) 컨퍼런스와 함께 중국 휴머노이드 업종 추가 모멘텀 기대

ETF 트렌드

- ◆ 주 초반 지정학·물가 우려로 위험선호가 위축됐으나, 이후 유가 하락과 AI·반도체 모멘텀 재부각으로 반등에 성공
- ◆ 차주는 대형 은행주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6월 CPI·PPI와 주요 기업 실적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물가 안정과 반도체 실적 호조 확인 시 투자심리 회복 기대
- ◆ 금융주 실적 대기 속 견조한 펀더멘탈, eSLR 완화 등 하반기 추가 모멘텀 및 순환매 수혜 가능성을 보유한 미국 대형은행 ETF 'KBWB' 소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14	15	16	17	18
<p>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연방재정수지  OPEC 회의  5월 경상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CPI  ADP 주간고용변화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5월 산업생산  6월 수출입  6월 무역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PPI  7월 NY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연준 베이지북  5월 산업생산  2분기 GDP  6월 고정자산투자  6월 산업생산  6월 소매판매  6월 실업률  6월 실업률  6월 수출입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소매판매  6월 잠정주택매매  5월 기업재고  7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동향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5월 무역수지  6월 통화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수출입물가지수  6월 주택착공건수  6월 산업생산  7월 잠정 미시간대  5월 경상수지  6월 CPI 		
<p>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B 파이낸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이피모간체이스  बैंक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코  시티그룹  패스널  피닉스 에듀케이션  파트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ML 홀딩 ADR  존슨 앤드 존슨  모간스탠리  블랙록  BNY 멜론  프로그레시브  PNC 파이낸셜  서비스스  엘리밴스 헬스  킨더 모건  신타스 유나이티드 항공 M&T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TSMC ADR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GE 에어로스페이스  넷플릭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애보트 래브러토리스  인튜이티브 서지컬  프로로지스  US뱅크프  스테이트 스트리트 알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래블러스 컴퍼니스  피프스 서드뱅크프  트루리스트 파이낸셜  리전스 파이낸셜  오토리브 		

펭귄 솔루션스 (PENG.US): Agentic AI가 당긴 메모리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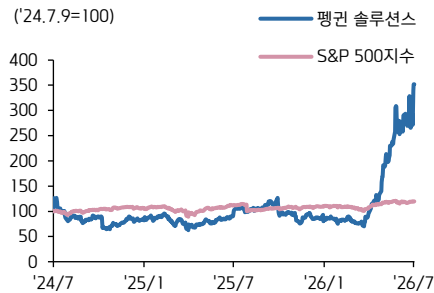
현재주가 (7/9) **USD 81.39**

Stock Data

산업분류	기술 하드웨어 & 반도체
세부업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거래소	NASDAQ GS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543.64
시가총액(mln)	4,170.6
유통주식수(mln)	51.2
52주 최고	89.86
52주 최저	16.04
일평균 거래량	3,38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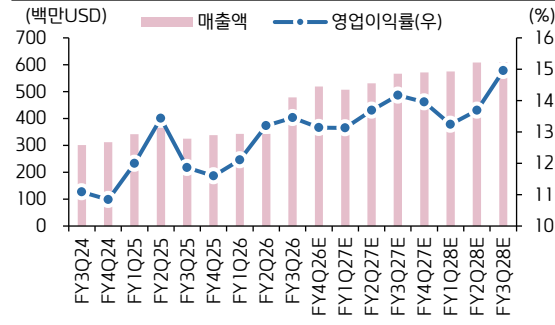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316.1	39.1	326.6	241.5
S&P 500	10.2	3.8	8.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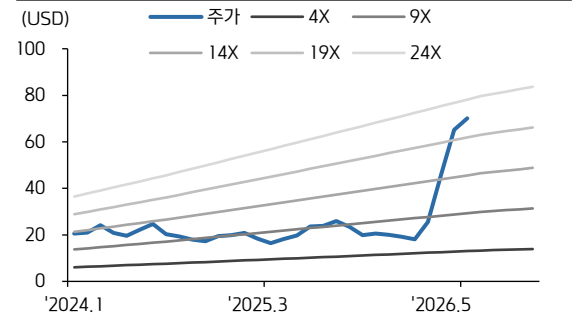
- ▶ **[분기 실적]** FY3Q26 매출액은 \$478.7M(+47.6% YoY)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Non-GAAP 조정 EPS는 \$0.84(+78.7% YoY)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 메모리 가격·물량 동반 강세로 Integrated Memory 매출이 \$275.1M(+111% YoY)로 급증
- ▶ **[투자포인트 1] Agentic AI 시대, 병목이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는 구조적 수혜의 정중앙에 위치:** 단발성 프롤프트-응답형 AI와 달리 에이전트형 AI는 지속적·대용량 컨텍스트를 요구, 대규모 추론의 성능 병목이 연산이 아닌 메모리로 이동 중. 동사는 30년 업력의 데이터센터 특화 메모리 모듈(OEM형)에 더해 CXL 확장카드, MemoryAI KV캐시 서버(추론 성능 최대 2배, 첫 토큰 지연 최대 1/8, GPU HBM 대비 4~5배 비용효율)로 이 병목을 직접 공략하는 차별화된 포지션 보유
- ▶ **[투자포인트 2] 고객 다변화와 플랫폼화로 성장의 '질'과 FY27 가시성 확보:** FY26 가이드는 Meta향 하이퍼스케일 매출 이탈과 Penguin Edge 사업 정리로 약 -14%p(전사 기준)의 역풍을 흡수한 수치로, 이를 제외한 지저 성장률은 ~36%에 달함. 비하이퍼스케일 AI인프라 매출은 +81% YoY 성장하며 Advanced Computing 내 비중이 33% → 58%로 확대됐고, 엔터프라이즈·소버린 AI(Sandia 국립연구소 'Spectra')·네오클라우드(한국 Haein 등)로 고객층 다변화 진행 중

PENG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PENG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1,171	1,369	1,683	2,196
영업이익	120	168	219	303
영업이익률(%)	10.3	12.2	13.0	13.8
순이익	67	103	165	233
EPS(USD)	1.25	1.90	2.61	3.32
PER(배)	-	27.6	31.2	24.5
PBR(배)	2.8	3.2	8.6	7.5
ROE(%)	-17.1	3.9	18.7	-
배당수익률(%)	-	-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7-09 컨센서스 기준, Non-GAAP 기준

알리바바 (BABA.US):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8월 중순까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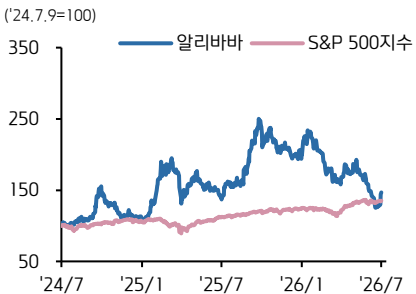
현재주가 (7/9) USD 111.14

Stock Data

산업분류	소매 & 도매 - 자유
세부업종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거래소	New York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543.6
시가총액(mln)	1,809,331.4
유통주식수(mln)	2,400.8
52주 최고	192.67
52주 최저	91.99
일평균 거래량	12,218,766

Performance & Price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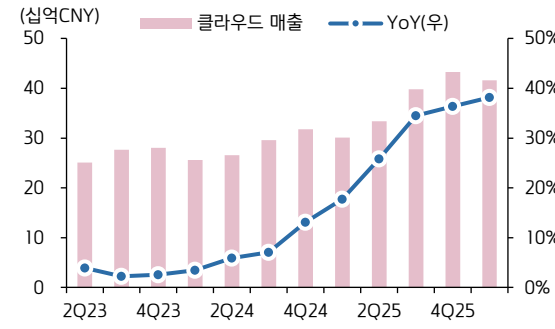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24.2	-7.2	-26.4	7.0
S&P 500	10.2	2.1	8.3	20.4



▶ **FY1Q27 실적은 클라우드 성장 가속과 퀵커머스 적자 축소로 우려 대비 양호할 전망:** 알리바바 클라우드 매출은 YoY +45% 수준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인 3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중국 내 토근 소비 증가로 클라우드 수요 견조. 또한 현재 AI 연산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는 점도 우호적. 4월 이후 일부 서비스 가격 인상과 고마진 MaaS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 전망. 중국 내수 부진으로 중국 커머스 매출 회복은 제한적. 다만 정부의 반내권 정책기조에 따른 경쟁완화로 퀵커머스 사업의 적자 폭은 전분기 대비 크게 축소될 전망. 중국 커머스 사업의 높은 이익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는 전체 이익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도 전주 대비 약 7%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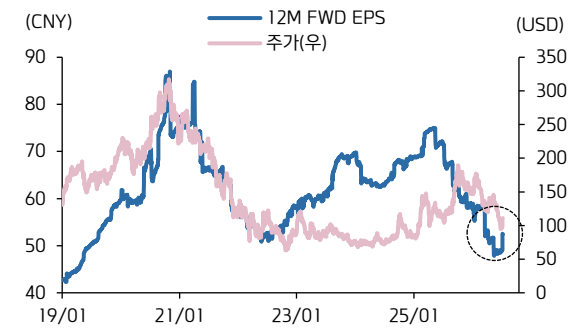
▶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알리바바 주가는 최근 이틀간 13% 상승. 1)이익 회복 기대감과 2)역외 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에 기인. 그중 퀵커머스 손실 축소에 따른 이익 추정치 하향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커머스 사업의 본격적인 이익 추세 전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다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FY1Q27 실적이 발표되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알리바바 분기별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



주: Calendar year 기준
자료: 알리바바, 키움증권 리서치

알리바바 12M FWD EPS 및 주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CNY)	FY25	FY26	FY27E	FY28E
매출액	996,347	1,023,670	1,123,129	1,258,427
영업이익	202,325	113,483	155,549	210,497
OPM(%)	20	11	14	17
순이익	158,122	60,658	107,570	146,704
EPS(CNY)	65.4	26.8	43.9	74.8
PER(배)	14.8	43.6	17.2	10.1
PBR(배)	2.3	2.0	1.9	1.6
ROE(%)	13.0	10.2	8.8	10.9
배당수익률(%)	0.8	0.8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7-09 컨센서스 기준, Non-GAAP 기준

Invesco KBW Bank ETF (KBWB.US): 금융주 실적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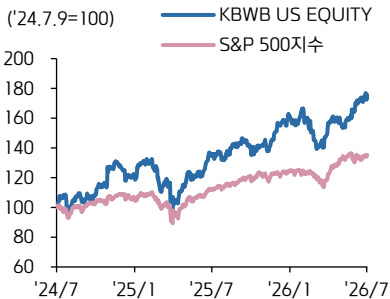
현재주가 (7/9) USD 95.57

Stock Data

자산군 분류	주식
세부전략	대형 은행
거래소	NASDAQ GM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543.64
순자산총액(백만 달러)	6,904.0
유통주식수(mln)	72.2
52주 최고	96.92
52주 최저	70.68
일평균 거래량	1,521,936.3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13.4	7.0	9.1	29.3
S&P 500	10.2	3.8	8.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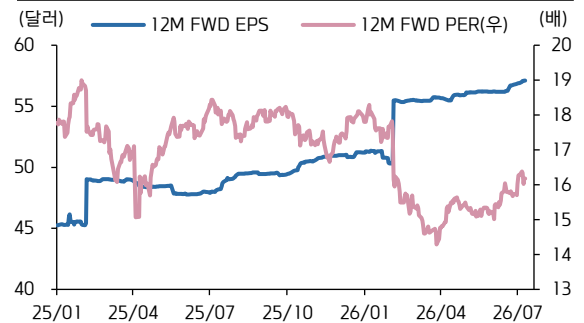
- ▶ **개요:** 'KBWB'은 미국 대형 은행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미국 대형 은행과 일부 투자은행(IB), 브로커리지 및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KBW Nasdaq Bank Index를 추종. 구성종목 수가 약 30개로 적고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적용해 대형 금융회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주요 편입 종목은 BoA(8.4%), JP모건(8.2%), 웰스파고(8.2%), 모건스탠리(7.8%), 골드만삭스(7.4%) 등
- ▶ **투자포인트 1:**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대형 은행들의 CET1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최소 규제 기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견조한 자본 건전성 재확인. 양호한 테스트 결과와 SCB 하락을 바탕으로 배당 인상 및 자사주 매입 확대가 이어지며 주주환원 모멘텀도 강화. 고금리 환경에서 축적된 이자수익과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은행·자산관리 부문의 비이자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대형 은행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 유지
- ▶ **투자포인트 2:** eSLR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채 및 대출자산 보유에 필요한 자본 부담이 낮아지며 자산 운용 효율성과 ROE 개선 기대. 은행권의 국채 매입 확대가 장기금리 하락 및 예대마진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출 성장과 자본환원 여력 확대가 이를 일부 상쇄할 전망. 기술주 중심의 시장 쏠림이 완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금융주로의 순환매 유입 가능성도 부각

'KBWB' Top 10 Holdings 비중

티커	종목명	비중(%)
BAC	Bank of America Corp	8.36
JPM	JPMorgan Chase & Co	8.21
WFC	Wells Fargo & Co	8.17
MS	Morgan Stanley	7.77
GS	Goldman Sachs Group Inc/The	7.43
STT	State Street Corp	4.24
FITB	Fifth Third Bancorp	4.16
USB	US Bancorp	4.15
PNC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The	4.13
C	Citigroup Inc	4.04

자료: Invesco,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7-08 기준

S&P 500 금융 섹터 12M FWD EPS, PER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7-09 기준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43.2	46.5	53.8	56.7
EBIT	10.0	14.3	17.2	18.8
EBIT 이익률	23.0	30.6	32.0	33.2
순이익	7.7	10.8	13.7	15.0
PER(배)	14.1	15.0	13.4	12.3
PBR(배)	1.4	1.6	1.6	1.5
ROE(%)	8.3	10.7	11.9	12.1
배당수익률(%)	2.9	2.5	2.4	2.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7-09 기준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 Global ETF 김진영
- ◆ China Strategy 박주영
- ◆ US Strategy 김승혁
- ◆ US Equity 박기현
- ◆ RA 조호준
- ◆ RA 한유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